



# “연기는 제 천직이에요”

영화 ‘곡성’에서 아버지를 향해 “뒀이 중헌디”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이던 어린 소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말끝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맑고 순수한 여고생이 있을 뿐이다.

18일 종로구 소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환희(16)는 “긴장하면 엽소처럼 목소리가 떨린다”면서도 어떤 질문에도 목소리 나게 답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은 ‘곡성’ 이후 키가 25cm나 훌쩍 자라 이젠 제법 숙녀티도 났다.

김환희는 영화 ‘여중생 A’ (20일 개봉)에서 여중생 미래 역을 맡아 스크린에 복귀했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작품이다.

“미래와 실제 제 성격이 비슷하지는 않아요. 미래는 소심한 편이지만, 저는 털털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극 중 미래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린다.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그에게 유일

한 즐거움은 PC 게임하기와 글쓰기다.

그런 그에게 같은 반 친구 백합(정다빈 분)과 태양(유재상)이 다가오지만, 이들의 속내를 알게 된 뒤에는 상처를 받는다.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던 미래는 PC게임 속 친구 재희(김준면)를 만나 속내를 털어 놓고 위로받는다.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김환희는 “웹툰과 달리 미래의 복잡한 감정을 대사보다는 눈빛과 표정으로 연기해야 해서 다소 어려웠다”면서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부끄럽기도 했다”며 속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관객들이 영화를 본 뒤 ‘너는 혼자 아니다. 주변에는 누군가가 있다’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환희는 이 작품에서 아이돌 그룹 엑소의 리더 김준면과 호흡을 맞췄다. 여배우처럼 능숙하게 답하다가 아이돌 가수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했죠. 더구나 김준

## 김환희, ‘여중생 A’ 서 소심한 미래 역할 스크린 복귀 동명 웹툰 원작... “눈빛·표정으로 감정 표현 어려워”

면 오빠는 가수인데, 연기할 때는 배우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원래 아이돌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방탄소년단 팬이죠. 앓, 물론 엑소도 좋아합니다. 하하.”

김환희는 2008년 드라마 ‘불한당’으로 데뷔했다. 그 뒤 다양한 작품으로 필모그래피를 쌓다가 2016년 ‘곡성’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신들린 연기는 지금껏 회자한다.

“‘곡성’을 찍을 때 무섭기보다는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더 사실적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만 했어요. 나중에 배경음악과 효과음이 들어간 장면을 스크린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제 연기를 못 보겠더라고요. 친구들도 ‘내가 알던 그 김환희가 맞느냐’며 깜짝 놀랐죠.”

배우로서 한 번쯤 성장통을 겪었을 법도 한데, 김환희는 “연기 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고 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연

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나 할까요. 까르르.”

김환희는 평생 연기자로 살기 위해 차근 차근 준비 중이다.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3년 정도 뒤면 성인 연기도 해야 하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10대만이 할 수 있는 장르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김환희는 또래 연기자 중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육자’에 출연한 안서현을, 톨모델로는 공효진을 꼽았다. 그는 “공효진 선배님처럼 작품마다 완전히 색다른 연기를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 만큼, 남자친구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묻자 “너무 오랫동안 솔로였다”며 “초등학생일 때 30일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뒤로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해맑게 웃었다.

/연합뉴스

## 홍콩 특유 유려한 액션 ‘파라독스’

### 부상에·부패한 경찰 등장...마지막 반전 예고

2008년 개봉한 리암 니슨 주연 ‘테이큰’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전직 CIA 요원 출신인 아버가 닥치는 대로 범조직을 때려 부수는 영화다.

개봉 당시 리암 니슨의 거침없는 액션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237만 명이 관람했고 전 세계 흥행수입은 2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로 시작해 “찾아내서 죽여버릴 것이다”로 끝나는 리암 니슨과 납치범의 전화 통화는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살파랑’, ‘살파랑2: 운명의 시간’을 연출한 윌슨 입(葉偉信) 감독의 ‘파라독스’는 ‘테이큰’의 리메이크라고 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간다.

홍콩 경찰 리는 태국 여행 중 실종된 딸 왕지를 찾아 태국으로 향한다. 태국계 중국인 경찰 초이 킷과 함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리는 딸이 장기매매조직에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된다.

리는 딸을 구하려 홀로 장기매매조직 소굴로 쳐들어가고, 초이 킷은 이 사건 배



후에 자신의 동료 경찰과 재선을 노리는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뇌한다.

딸을 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버의 모습이나 범조직과 결탁한 부패한 경찰이 등장한다는 점은 ‘테이큰’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윌슨 입 감독은 홍콩 영화 특유의 유려한 액션 장면을 결합해 거침없이 부수는 데 초점을 둔 ‘테이큰’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무술감독으로 참여한 홍진바오(홍금보) 영향이 컸다. 주인공 ‘리’를

연기한 구렌리는 액션 영화에 처음 출연했지만 흥진바오 지도로 능숙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카메오로 잠시 출연한 ‘옹박’ 토니 자 역시 태국 경찰 ‘탁’ 역을 맡아 여전한 무술 실력을 뽐냈다.

여러모로 ‘테이큰’의 리메이크 버전 같은 작품이지만 마지막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보인다. ‘영웅본색’식 비장미를 덧입혀 ‘테이큰’과는 다른 결말을 시도한 듯하다. 21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 “시나리오 작업 당시엔 통일 자체가 SF”

### 정우성·강동원 주연 ‘인랑’ 내달 25일 개봉

“‘인랑’의 시나리오를 쓸 때만 해도 통일 이야기는 그 자체가 SF였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첫 작품 ‘조용한 가족’ 이후 항상 새로운 장르와 소재, 개성적인 캐릭터를 선보인 김지은 감독이 오시마마루 원작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인랑’으로 돌아온다.

다음 달 25일 개봉 예정인 ‘인랑’은 남북이 통일을 준비 중인 2029년을 배경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 ‘셧트’와 경찰 ‘특기대’의 정예조직 ‘인랑’ 간 대결을 그린 SF 영화다.

김지은 감독은 18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지 과업이지만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단이 고착된 구조에서 이익을 보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옳은 길,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데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세력과 대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상상했고, 그런 영화적인 상상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인랑’”이라고 소개

했다. 인랑에서 특기대 훈련소장 장진태 역을 맡은 배우 정우성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 “현실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상상력의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였는데 현실이 상상력을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이 현실에서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가 펼쳐지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인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 정우성과 강동원의 만남으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다.

김 감독은 “지인이 농담 삼아 ‘인랑은 장라카 비주얼’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화면 안에 여기 있는 배우들이 나올 때는 정말 감독으로서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다. 팬들은 그런 순간들을 더 기다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인공 임종경 역을 맡은 강동원은 정우성과의 호흡에 대해 “정우성 선배의 성격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현장에

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사석에서나 카메라 앞에서나 항상 똑같은 선배다.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좋은 형’이라는 말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성은 “사석에서는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만날 기회는 정말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런 기회는 후배보다 선배에게 더 값진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후배가 현장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큰 재미”라고 화답했다.

전작 ‘1987’에서 이한열 열사 역을 맡았던 강동원은 이번 작에서 30kg에 달하는 강화복을 착용하고 지하 수로를 내달리는 열연을 펼쳤다.

강동원은 “처음 강화복 액션을 촬영할 때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1주일 정도 촬영하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감독님이 뭐라고 했다. 또 조금 있으니까 그걸 입은 채로 육탄전을 시켰다”고 뒤통리를 늘어냈다.

이에 김 감독은 “제가 한 장면, 한 장면을 공들여 찍는 편”이라며 “그만큼의 노고와 스테프·배우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 ‘히든싱어5’ 성공적인 복귀

### 첫회 시청률 5%대...H.O.T. 출연 화제

약 2년 반 만에 돌아온 JTBC 예능 ‘히든싱어’가 첫회부터 시청률 5% 벽을 넘어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방송한 ‘히든싱어5’ 시청률은 5.481%(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강타가 원조 가수로 출연하고 H.O.T. 멤버 토니안, 이재원

등이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됐다. 또 강타가 3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히든싱어5’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과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장법까지 완벽하게 소화 가능한 ‘모창 도전자’의 노래 대결이 펼쳐지는 내용으로, 외국에 포맷이 수출되는 등 국내외에서 사랑받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김동률, 나일, 린, 박효신, 바다, 비, 싸이, 에일리, 이승기, 이소라, 이승철, 자이언티, 케이엘, 흥진영 등 다양한 가수의 모창 능력자를 모집 중이라 기대를 모은다.

한편, MBC TV 음악 예능 ‘복면가왕’에서는 18주 만에 ‘가왕’이 바뀌었다. 시청률은 5.2%-8.3%였다.

전날 방송에서는 8연승에 성공해 9연승을 기록한 하현우와 동물을 이물지 관심이 쏠렸던 ‘동방불패’가 새로운 복면가수 ‘밥 로스’에 가왕 자리를 내줬다. 동방불패는 손승연이었다.

손승연은 “지금 성대에 혹이 나서 재활치료 중이다.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나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KBS 2TV ‘해피선데이’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7.7%, ‘1박2일’은 10.7%, MBC TV ‘두니야 처음 만난 세계’는 2.8%, SBS TV ‘런닝맨’은 5.5%-7.2%, ‘집사부일체’는 7.0%-8.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늦은 시간대 방송한 SBS TV ‘미운 우리 새끼’는 16.8%-19.3%, KBS 2TV ‘개그콘서트’는 5.5%였다.

## 에이핑크, 내달 1년 만에 컴백

### 각기 다른 매력 발산 미니 7집 ‘원 & 식스’

걸그룹 에이핑크가 다음 달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18일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핑크는 7월 2일 오후 6시 미니 7집 ‘원 & 식스’(ONE & SIX)를 내고 완전체 활동에 나선다. 팀 활동은 지난해 6월 미니앨범 ‘핑크 업’(Pink UP) 이후 1년 만이다.

‘원 & 식스’에는 한 앨범에서 여섯 멤버의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포



부, 팬들(ONE)과 여섯 명의 에이핑크(SIX)가 함께 하는 7주년(ONE+SIX)이란 뜻이 동시에 담겼다.

국내 대표 ‘청순돌’로 꼽히는 에이핑크는 이번 앨범에서 기존 이미지에 성숙한 분위기를 더하는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핑크는 19일부터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 콘셉트 포토, 유닛(소그룹)과 개별 이미지, 뮤직비디오 티저 등을 공개해 컴백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파이브’(FIVE), ‘내가 설렘 수 있게’, ‘리멤버’(Remember), ‘러브’(LUV), ‘미스터 추’(Mr. Chu), ‘노노노’(NoNoNo)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며 멤버들이 연기, 광고,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다.